

제429회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교육부 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교육부 소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교육부 소관
- 수사의뢰
-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4
 - 교육부 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4
 - 교육부 소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4
 - 교육부 소관
- 수사의뢰 6
-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7
-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10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사의뢰, 감사원 및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의 의결하기 전에 간사님들 간에 좀 긴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관계로 교육부장관

님 또 국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 1시간 가량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연구윤리 문제, 사학비리, 학생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관과 인사들이 출석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과 관계자들은 출석을 회피하거나 출석하더라도 허위로 진술을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특히 숙명여대 얘기를 좀 할게요. 숙명여대의 연구윤리 검증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윤금 전 총장, 현 문시연 총장은 김건희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학교가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 반 동안 논문 검증을 지연시키며 사실상 진상 규명을 회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숙명여대 측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학교 측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 정말 참 가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서실 명의로 이 한 장짜리 문서를 제출했어요. 이 문서를 보면 ‘최초 신고 때부터 약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학교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말고 대국민 한테 하라는데, 지금 숙명여자대학교는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지금 비서실이 전화 또 끊었어요. 우리 교육위원장실에서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명의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문이나 보내고.

그래서 저희는 문시연 총장을 다음번 상임위 때 증인 채택해서 국회로 직접 불러 가지고 입장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는 10번, 20번 있는데 안 나올 때마다 제가 다 증인 채택해서 반드시 불러들여 가지고 국회에서 대국민 앞에서 본인의 입장, 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을 우롱했는지 이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넘어 가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진짜 문시연 총장 정말 비서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진실로 국민을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은 국민 앞에서의 진실 서약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와 감사요구안, 종합감사 의결 등에 대해, 정말 여야 간사님들이 노력하셔서 합의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 정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사실 저는 합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으로 참 어려운 부분을 여야 위원님들끼리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리 모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두 분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조정훈 위원 저희가 다 뺏겼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희가 다 뺏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 거짓을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야를 넘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공통적인 책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자체 감사요구안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의 교육 정의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소중한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모두발언을 마치고요. 오늘 회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김대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하고 고민정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이 그동안에 교육위원회를 이끌 때 서로가 참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교육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한 분 한 분이 새벽부터 여기 와 가지고 1시간 10분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김대식 위원 나는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면 차라리 월요일 날 아침 일찍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고급 시간에 이렇게까지 1시간 10분 동안 기다려 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교육위원회는 약속과 시간 이것은 좀 정확하게 지켜 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장 김영호 예.

○김대식 위원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기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와 지적을 저희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건이 있고, 특히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안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표결을 하려면 저희가 최소한 교육위원회한테 사전에 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을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도, 아직도 지금까지 수정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비단 이번의 문제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소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의 굉장히 많은 예산을 처리하는데 교육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당일 날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국회의 예산 심사·감독권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어떻게 수백억 원의 예산을 처리하는데 교육위 예산소위원회한테 아침에 자료가 옵니까?

그 예산심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 안건부터 시작해서 교육위원회께서 이 교육위의 회의 문화부터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사전에 교육위원들이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그래야 안건 처리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사실 국회의 좀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자유롭지가 않은데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수석님께서는 야당 간사님 또 여당 간사님과 함께 김용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그 방향성과 시스템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희가 조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11시13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정훈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2026년도 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59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131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223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50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기금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학진흥기금에서 2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9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영 효율화 노력, 기관사업비 투명성 확보 등 총 8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립대 병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당직비 등 총 13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AI 인공지능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의 구체화 미흡을 고려하여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 1789억 3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109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 중심 대학 인센티브의 2개 대학 추가분 8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은 의대교육 혁신 지원과 지역혁신 허브와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3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에 161억 5000만 원, 학생건강 지원 강화 사업에 72억 원을 제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고받은 심사 결과에 대해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 예산에 관해서……

○위원장 김영호 예, 예산 관련돼서.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교육위 예산안에 방학 중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대책을 꼭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조리사 등 방학 중 저임금 즉, 11년차 근무자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311만 원 정도 받고 방학 중에는 72만 원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학 중 수당이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이게 부결되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다만 각 교육청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해 보겠다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육감님들의 응답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단체협상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교육감 또는 각 지역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교육부장관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방치해 뒀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꼭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교육위원회 각 위원장님과 위원들 또 저에게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세요?

○김문수 위원 예, 들으면 좋기는……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교육부장관 최교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이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결위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앞으로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의결해 주신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 더욱 깊이 살펴 주신 조정훈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후 진행될 예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책정된 예산으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4. 수사의뢰

(11시2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4항 수사의뢰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의혹과 연구 일련의 검증 과정과 관련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과정 속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요구 주문과 제안 이유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요구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먼저 김용태 위원님이 조금 빨리 들어 주셨는데 마지막에 간사님이 정리해 주시지요.

○김용태 위원 먼저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여야 간사분들께서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주문 사항의 3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문과 주문 제안 이유를 보면 저는 이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부실 편성에 대한 감사요구인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을 없애 달라고 감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주문에 대한 내용도 좀 헷갈리고요.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학생 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학생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정책이 추진된 것은 제도개선 같은 것을 주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감사의 요구 이유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아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특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고 3 학생에게 직접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을 도입한 것은 선거 전 현금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함’.

제가 국정감사 때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살포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1위는 전남교육청이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약 870억 원의 돈을 예산을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료에는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현금성 지원 살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이유라면 해당 교육청에 대한 정책감사도 이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저는 여당에 묻고 싶은 게, 엊그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실장이 상반기에 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책감사를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께,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정책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정책감사를 없애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발표인데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당이 대통령실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인지 국민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합의해 주셔 가지고 다시 안전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저도 실은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여야가 마지막까지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련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듣기는 들었는데요. 수정된 문구에 추가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감사요구는 현금 살포성 사업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받은 현금 지출성 내역에는 본 사업은 들어있지도 않고.

가장 많은 현금 지출은 전남과 전북교육청에서 지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기 보면 ‘현금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 현금 살포성 상황이라는 정황에 대한 조사인데 이 문구는 저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목이 ‘경기도교육청 고 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의 예산 부실 편성’, 이 표현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부실 편성한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그러면 돈을 조금 줬다는 건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지 운영상에서 비효율이 있었다는 건지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감사원에서 뭘 할지 알지, 이 내용을 감사원에서 받아 보면 ‘도대체 나보고 무얼 하라는 거지?’라고 의문을 할 정도로 좀 모호하고 방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건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필요하면 저희가 이 안전 하나만 추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법안소위 이후에 저희가 전체회의를 한 번 또 할 거니까, 국정감사 보고서 본회의 의결 전에. 좀 꼼꼼하게 문구를 보고 감사원에 요구하는 게 무언지 명확하게 적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간사 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들으시고……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고발 건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부 감사, 여러 가지 여야 위원님들 간에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의 의견을 존중하므로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 주신 부분은 고민정 간사님 말씀처럼 논의를 조금 더 이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준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님과 조정훈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아주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에 경기도교육청 고 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의 예산 부실 편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아까 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성 살포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여러 내용은 제가 정리도 해서 일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안전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기 남부지역 같은 경우가 특정 학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 3 수능 이후에 운전면허를 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청년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는 일입니다.

다만 특정 학원들을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현장에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아우성이 상당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하는 압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전체 학원 등록비가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0만 원 이하의 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이 학원 등록을 하게 됐을 때 70만 원 내지 혹은 그 이상의 돈을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원 등록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토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일선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빨리 집행하게 하라고 해서 장학사들의 압력도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저는 내용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이 법적 제도가 지금 조례부터 시작해서 일치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했던 여러 내용들 속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책임과 학교 교사의 인솔 부분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번에 전혀 그런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전면허학원을 가다가 만약에 잘못된 사고가 났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보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일체 없는 내용들입니다. 현금성 살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문구가 돼 있는 부분은 조정훈 간사님 말씀대로 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제목도 일부 수정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감사원 감사의 내용에서 배제되거나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양측의 말씀 들어 보니까 상당히 두 양측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바가 큰데요. 그러면 논의된 상황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일단 제안하고요 그 이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찮으시겠어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저희 양당 간사가 하면 위원장님께서 그것 위임을 좀 받아 주시면……

○**위원장 김영호** 자구 정리는 원래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니까 이것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논의된 바를 반영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여튼……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겠지만, 위원장님께 위원회 회의 중이지만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후에 위임하시면……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그러니까 위임은 저한테 돼 있고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 제 권한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지요?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6.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11시32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요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요구안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는 의결로 요구한 감사 실시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우선 감사계획과 진행 상황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부 공직자들을 감사하는데 온정주의가 발동돼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우리 국회 여야 위원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분명히 명심하시면서 감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오늘 백승아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피감기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장관님과 위원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 드려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장관님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장홍재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직무대리 차영아
감사관 김도완
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화식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난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주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송하중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하운

임시회의록